

2017 새 설계

송 광 운 광주 북구청장

“고용 창출·여가 활성화…행복 복구 최선”

드론 경기장 조성·문화복지센터 건립

직장 어린이집 개원…직장맘 응원

내년 선출직 불출마…시책 갈무리

“45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광주 복구를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은 10일 “행정은 주민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지원하는 일”이라며 “올해는 취임 이후 10여년간 펼쳐온 행복 복구 시책들을 잘 갈무리하는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송 청장은 올해 구정운영 방향을 ▲지역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경제복구 건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 ▲자연과 상생하는 녹색도시 ▲도시재생을 통한 매력적인 생활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시 등으로 정했다.

실천 사업으로 ‘중·장년과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을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중·장년 퇴직 인력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고교 졸업자 취업 지원을 위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제’도 새롭게 선보인다. 청년과 기업에 6개월간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금을 줘 고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무인비행기) 경기장을 광주 최초로 만든다. 북구 용전동 영산강 하천 부지 6000㎡를 활용해 드론경기장을 조성, 올 상반기에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산업용 드론 성능시험 뿐 아니라 동호회 활동, 일반시민 체험, 이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드론문화와 레저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

송 청장은 “행복한 복지도시는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의 고충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면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직장맘 행복교실’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 어린이집’도 개원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양산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한다.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공사비 14억2000여만원 중 절반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센터는 지상 3층, 건축연면적 656.73㎡ 규모로 지어지며, 센터가 완공되면 비상근 의사 1명을 포

함해 모두 9명의 건강관리 인력을 배치돼 주민들의 의료 수요 충족은 물론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지역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와 거리가 멀어 공공의료 사각 지역으로 꼽혔다.

친환경 주민 힐링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양산제호수공원 일원에 조성될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속도를 낸다.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는 도서관, 문화의집, 평생학습센터 등과 45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송 청장은 그동안 공연문화 활성화의 결실들로 작용했던 공연장 부재문제를 해소하고, 아울러 양산·전국 등 신흥개발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력있는 생활도시를 만드는 복안으로는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를 내놔다. 또 전국 최초로 시행해 행정 효율화의 모델이 된 ‘도심속 썬디주차장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복구의 최대 염원인 ‘KTX 광주역 재진입’ 문제는 11만명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무산됐지만, 올해 대선에서 유력 후보의 공약에 포함시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슈로 부각시켜 광주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 제14대 광주 북구청장에 취임했다. 그로부터 10년6개월이 지났다. 남은 임기는 1년6개월, 하지만 내년이면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돼 사실상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이다.

송 청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직에 나가지 않겠다”며 “지역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내년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그는 “리더십의 완성은 가장 적당할때 잘 물러나는 것”이라며 “방향을 결정하니 차분하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지역발전위-10개 시·군 정책간담회



광주시와 지역발전위원회는 10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10개 인접 시·군과 자치구가 참여한 빛고을생활권 지역발전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발전 정책을 공유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고객센터 사업 수행기관 모집

광주시는 2017년도 ‘지역 고객센터 활성화 사업’, ‘상담사 인력양성 사업’ 수행기관을 각각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고객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고객센터 유치기업 발굴 및 유치 ▲수도권 고객센터 DB구축 및 소식지 발간 ▲지역 고객센터 현황조사 및 방문 지원 ▲지역 고객센터협의회 운영 지원 ▲고객센터산업 이미지 개선 및 광주시 고객센터 입지 여건 등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상담사 인력양성 사업은 ▲고객센터 상담사 신규 양성(150명 이상) 및 취업연계 ▲재직상담사 직무향상 교육(250명 이상)

▲대학, 특성화고 및 자치구 순회 설명회를 통한 잠재 상담사 발굴 ▲상담사 구인·구직인력 DB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 등을 맡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0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지를 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인력과 강의실, 사무공간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 기관·단체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게시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우치동물원 동물생태해설사 모집

18~20일 방문 접수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동물원 한바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동물생태해설사(3명)를 공개 모집한다.

동물생태해설사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미취업 시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우치동물원에서 자체 교육한 후 위촉한다.

모집인원은 3명이며,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하루 총 6시간 우치동물원을 한 바퀴 돌면서 동물이야기와 야생동물의 생태를 해설하고, 하루 활동비로 6만원을 받는다. 참가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18일부터 20일까지 우치공원관리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발자를 대상으로 2월14일부터 야생동물생태 강의, 해설 관련 기관 현장견학 등 교육과 리허설을 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한편, 동물원 한바퀴 체험프로그램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일반 시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치공원 홈페이지(http://uchipark.gwangju.go.kr/)와 현장에서 신청을 받는다. 문의는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동물복지팀(062-613-5894).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꽃으로 전통주 빚어보세

광주김치타운 강좌 운영

광주김치타운은 오는 2월7일부터 4월 25일까지 12주간(36시간) 주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주 만들기’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가정에서 손쉽게 빚을 수 있는 개나리꽃술, 석탄향, 자두화주, 두견주, 이화주 등 다양한 우리 전통주에 대해

알아보고 빚어보는 시간이다.

전통주 연구가 노진양씨가 강의를 맡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통주 문화론 등 이론부터 술 빚기까지 과정을 교육한다.

참가 신청은 2월3일까지 전화(062-672-8447, 8446)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30만원(교재 및 재료비 포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복지비 지출 전국 최고에도 빈곤층 절반만 혜택

복지재단, 복지사각지대 분석…전체 예산의 36% 차지

기초수급자 7대 광역시중 최다…사회 안전망 구축 절실

광주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7대 대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초·중·고 학생 비중이 높아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광주시 차원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복지재단에 따르면 광주시 복지사각지대 관련 자료 분석 결과, 빈곤층을 대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광주시 전체 인구(147만5884명)의 4.9%인 7만1683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3.2%)을 넘어 7대 특·광역시중 최고였으며,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생애주기별 기초생활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대비 학령기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다.

생애주기별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초·중·고교생에 해당하는 학령기(6~11세)와 청소년기(12~19세) 수급자 비율은 광주가 26.8%(청소년기 21.7%, 학령기 5.1%)로 전국 평균 18.3%(청소년기 14.2%, 학령기 4.1%)보다 8%포인트 이상 높았다. 가구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수급자의 57.7%가 1인 가구였고 18.8%는 2인 가구로 조사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주시의 현실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빈곤층 수요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가 36.0%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반면, 빈곤층 수급자 대비 공급지수를 나타내는 ‘빈곤층 지수비율’은 광주가 0.45로 전국 평균(1.06)보다 훨씬 낮아 특·광역시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빈곤층 지수비율은 높을 수록 좋은 것으로 광주시의 0.45는 복지 수요의 절반에도 공급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광주복지재단 장현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는 광주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첫 단추를 꿴다는 의미이며, 재단의 첫 연구 성과”라면서 “빈곤층의 복지수요를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기초수급자 중 학생들 비중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급, 싸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 씩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